

전국 의대생들 ‘무늬만 복귀’ 수업 거부로 교육 정상화 난항

40개 의대 중 일부제의 전원 등록
등록률 높지만 참여율 저조 여전
교육부 “수업 참여해야 복귀 인정”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부분의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수업 참여는 미지수다. 1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1학년 강의실 모습. /뉴스시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집단휴학에 나선 의대생들 대부분이 지난달 31일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생 수업 참여도가 과제로 남았다. 교육부가 복귀 기준을 단순 등록이 아닌 ‘실질적인 수업 참여’로 보겠다고 한 가운데, 전원 등록했던 울산대 의대생들이 최근 다시 휴학계를 제출하면서 다른 의대에서도 ‘등록 후 수업 거부’ 등의 반발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정부가 수업 거부 의대생의 복귀 기한으로 제시했던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40개 의대 중 인제대와 인하대 등을 제외한 대부분 대학의 의대생 전원이 등록하거나 등록 의사를 밝혔다. 순천향대, 전북대 등 일부 대학이 이달 초로 기한을 미뤘고, 인제대도 5일이 기한이지만 대부분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21일이 복귀 마지노선이던 고려대, 연세대 의대 등에서 당시 절반 정도만 복귀하는 분위기였지만, 27일 서울대 의대생들이 투표를 거쳐 복귀하기로 한 이후 다른 의대생들도 동참하는 분위기로 전환됐다.

반면, 인하대는 지난 31일 자정까지 의대 수강신청을 마감한 결과 2025학번 신입생 120명 중 대부분이 신청하지 않았고, 2024학번 이상 의대생 등록률도 100% 채우지 못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신입생 대부분이 이번 학기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등록기간 연장 계획은 없지만, 최종 집계 후 내부 회의를 통해 추가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의대생들이 등록 의사를 밝힌데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정상화까지는 아직 고비가 남아있는 상태다. 의대생들이 투쟁 방식을 집단 휴학에서 복귀 후 수업 거부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분위기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울산대 의대는 학생 100%가 등록을 마쳤지만, 이후 학생들이 대거 휴학계를 제출했다. 울산대의대는 지난달 31일 개강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참여 학생 수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도 176명 전원이 복귀했지만, 1~2개 과목만 수강 신청해 미수강 제적을 피하는 방식으로 집단 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학생 전원이 복귀한 서울대 의대는 이날부터 1~2주간 온라인 수업을 하고, 학생 전원이 등록한 고려대와 경희대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의대 수업을 재개한 성균관대도 학생 수업 참여율은 5% 내외다.

한 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예과 1,2학년 수업은 일부 동영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도 수업을 듣는 학생은 거의 없다”라며 “다른 의대도 마찬가지”라고

토론했다. 다만, 정부는 의대생들이 100% 수업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수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각 대학이 판단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전 규모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원 복귀”의 의미를 ‘수업이 가능한 정도’로 해석하겠다는 의미로, 대략 정원 50% 정도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원 복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잡고 있지 않지만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자가 수긍할 정도라면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등록 기간의 미시 조정은 학생 복귀를 위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지난해처럼 대규모 휴학 승인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학생 복귀를 독려했다.

향후 의대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면, 내년 의대 정원은 이달 말께 확정될 전망이다.

/이현진 기자 hji@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 “교육감과 교사단 직접 소통”

서울교육정책 교사동행단 발대식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일 서초구 방배동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서울교육정책 교사동행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교사동행단이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에 열정이 있고 서울교육 정책에 관심이 있는 교사를 공개 모집해 기관 추천을 통해 교사동행단을 위촉했다. 이들은 교육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서 1년 동안 교육감과 만나 교육정책에 대한 조언과 제안을 하며, 현안과 정책 수립 관련 설문조사, 정책 포럼 등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교사동행단 활동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참여

를 확대하고 학교와 교육청 간 공감과 협력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근식 교육감이 참석해 유·초·중·고·특수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148명의 교사들에게 교사동행단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1년간의 활동에 대한 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교사동행단에 참여한 이미지 교사는 “동행이라는 말이 주는 울림이 커서 참여하게 됐는데, 현장의 선생님들과 함께 서울교육정책 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다”라며 참여 이유와 소감을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행복한 서울교육을 만드는 데 교사동행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개방

이달 18일부터 4개 지역서 운영

경기도는 4월 18일 금요일부터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한다고 4월 1일 밝혔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DMZ 접경지역이 보유한 평화·생태 및 역사와 자연의 가치를 국민들이 직접 걸어다니며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김포, 고양, 파주, 연천 4개 지역에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운영될 예정이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발전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신청은 3월 28일부터 ‘평화의 길’ 누리집과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리’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참가비는 1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이나 특산물 등으로 환급된다. 단, 민통선 지역이므로 참가시 신분증은 꼭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기도 4개 지역 테마노선은 ▲임진강·예성강·한강이 합류하는 조강(祖江)과 북한의 선전마을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김포 한강하구-애기봉 코스’



DMZ 평화의 길.

▲장항습지와 행주산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고양 장항습지 생태코스’ ▲임진강변 생태탐방로와 북한 개성시내가 선명하게 보이는 도라전망대와 평화원의 상징 도라산평화공원 등 평화안보관광지를 포함한 ‘파주 임진각-도라산 코스’ ▲1.21. 침투로와 삼국시대 군사 요충지였던 호로그루를 포함한 ‘연천 1.21 침투로 탐방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노선별로 접경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관광자원을 체험하고, 해당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해설사와 안내요원을 통해 접경지역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서울시, ‘대학생 마음건강’ 패스트트랙 구축

한국외대 등 대학 4곳과 협력
상담 후 심리회복·성장지원도

서울시가 진료와 취업 등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우울한 대학생들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 대학 학생상담센터와 협력한다.

서울시는 ‘대학생 마음건강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동양미래대, 삼육보건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등 대학 학생상담센터 4곳과 협력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간이정신건강진단검사(KSCL95)를 직업군별로 분석한 결과 동일 집단 내 고위험 비율은 대학생(30.4%), 무직·취업 준비생(30.0%) 순으로 높았다. 이어 전문직(23.6%), 프리랜서(23.3%), 전업주부(23.3%), 직장인(21.6%), 자영업자(19.6%), 대학원생(13.6%) 순이었다.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는 대학생들이 진로, 취업, 대인 관계, 삶의 방향 설정 등 다양한

이유로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은 심리 지원이 필요한 19~39세 서울 청년을 대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 기질·성격검사 등 과학적 진단 진행 후 마음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심리 상담과 후속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패스트트랙에 참여하는 대학 학생상담센터는 심리적 위기로 즉시 상담이 필요하거나 추가 심층 상담이 필요한 대학생들을 발굴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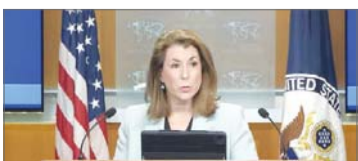
4월 2일 (수) 음력: 3월 5일

수도권 날씨 5 ~ 1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0/16, 동두천 1/16, 가평 0/17, 파주 0/14, 서울 5/16, 양평 2/16, 인천 5/13, 수원 4/15, 용인 4/15, 평택 1/16, 백령도 5/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美 국방부 “전투 병과 체력 기준, 남녀 차이 없어”
▲美 “우크라는 입헌 민주주의”... 푸틴 ‘임시정부’ 요구 일축 /사진 뉴스시스

▲르 펜, 5년간 공직출마 금지령... 즉각 유효, 27년 대선 불가
▲이란, “미-이스라엘 핵구실 공격시 핵무기 개발 본격화” 위협

▲중국군 대만 포위 연합훈련 시작... 라이칭더에 비난 공세
▲일본 정부 “대지진 발생 시 30만명 사망할 것” 발표